

충북호남향우회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 도약 힘 보탠다

전남도, 청주서 향우대상 정책비전투어

향우회와 미래산업·고향사랑 협력 강화

전남도가 충북 호남향우회와 함께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3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정책비전투어에서 충북 호남향우회와 함께 ‘대한민국 AI 수도’ 도약과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등 전남의 미래 비전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의 핵심 도점성과 향후 발전 전략을 광역권 향우들과 공유하고, 출향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부산,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 이어 충북에서 네 번째로 열린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겸 충북호남향우회장, 최순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김철민 충남호남향우회장 등 충북 26개 지회 향우회장과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에너지 수도 전남의 위상 강화 △AI·인공대양 등 첨단산업 육성 △관광객 1억 명 시대 개막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향우들의 고향 참여를 요청했다.

충북호남향우회는 행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1천500만 원을 기탁하고, ‘전남 사랑에 (愛) 서포터즈’ 3만 명 가입을 약속하며 전남 발전을 향한 실질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행사장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전남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다양한 도정 홍보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박종겸 충북호남향우회장은 “향우들의 따뜻한 참여 속에서 전남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북 30만 향우 모두가 전남의 도약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고향사랑 실천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충북 향우들의 환영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은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대양 연구시설 유치에도 총력을 다해 전남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 향우회의 뜨거운 참여가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충북호남향우회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해 향우회원들과 고향사랑응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들은 지난날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민간정원 휴식지에서 ‘12기·13기 선·후배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선·후배 함께한 가을음악회

민간정원 ‘휴식정’서 12·13기 원우 60여명 참석

난타·통기타·색소폰·시낭송·호남검무 등 공연

“10월의 마지막 밤” 통기타와 색소폰 선율이 가을밤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들의 마음을 적셨다.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민간정원 ‘휴식정’에서 ‘12기·13기 선·후배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렸다.

행사는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12기 임태근 동창회장, 13기 전민수 원우회장, 이승배 원장, 원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박화

옥 원우(13기)가 운영하는 ‘휴식정’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12기·13기 회장 인사말과 축하, 통기타 연주, 시 낭송과 팬플루트, 유명곡·한진옥류의 호남검무 공연, 색소폰·대금 연주 등으로 이어졌다. 약 1시간 동안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감성을 더했다.

특히 13기 전민수·임중재·정광래·조기

옥 원우가 직접 출연진 라인업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유명곡 원우는 전통 복장을 갖추고 우아한 호남검무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이 끝난 뒤 원우들은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샐러드, 피자, 크리치조, 스테이크 등 만찬을 즐기며 선·후배 간의 우정을 나눴다.

임태근 동창회장(12기)은 “이번 음악회에 13기 원우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2기와 13기 원우들이 마치 친한 친구처럼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좋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민수 원우회장(13기)은 “올해 부여·공주, 목포 등 2번의 국내여행과 오는 12일 태국 치앙마이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시나브로 갈수록 원우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해 준 박화옥 원우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는 오는 11월 6일 이수진 강사 KOREA 소비트렌드 강의, 12일부터 16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졸업여행, 20일 13기 박미임 원우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의를 마치고, 12월 4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깊은 울림’ 전남 시니어 합창경연대회 성료

25팀 1000여명 참여…나주 은파합창단 ‘최우수상’

전남지역 어르신들이 깊이 있는 하모니를 선보인 제9회 전남도 시니어합창 경연대회에서 나주 은파합창단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시니어합창단 25개팀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다.

평균 연령 70세를 넘나드는 어르신들의 선보인 깊이 있는 하모니는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연륜에서 우러나는 감성적 표현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에 나주 은파합창단이, 우수상에 영광 산울림시니어합창단, 목포 풀잎합창단, 강진 6070합창단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화합하고 성원해준 덕분에 최근 전남도가 대한민국 AI 수도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어르신들께서 물려준 이 자랑스러운 전남을 후손들에게 더욱 찬란하게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 활동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해소, 사회적 유대감 증진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농협, 조합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광양농협은 최근 광양읍 서천그라운드골프장에서 제6회 광양농협 조합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광양읍, 봉

강면, 옥룡면의 그라운드 골퍼동호인과 행복나눔봉사단, 광양농협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가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 단체전에서는 광양

읍 1팀이 우승, 봉강팀이 준우승, 광양읍 2팀과 용강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허순구 광양농협 조합장은 “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im@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같은센터. 문의 062-374-281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이정순씨 별세. 정종신(광주불교방송 보도국 국장)·정종원(전 금호타이어 상무)씨 모친상. 박영민(광주 수완초 교장)씨 시모상. 정승우(전남일보 기자)씨 조모상=2일. 광주남문장제시장 101호.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구례 선영. 062-675-5000.

운세 (음력 9월 14일)

48년생 난처해질 수 있으나 의연하라
60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72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장 찍으라
84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96년생 일 처리는 애를 먹겠다

51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손해
63년생 겉은 가난해도 실상은 부자
75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계기가 주어질 것
87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 작품
99년생 집 밖에서 소득을 얻는다

54년생 금전 지출은 삼가하라
66년생 남에게 베푸는 오정이 따듯하다
78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다
90년생 몰라도 될 일을 일게 돼 걱정

57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69년생 배우자를 찾지 말 것
81년생 현재 있는 그대로 보이라
93년생 공격적인 재량이 없다

49년생 뜻대로 이뤄지기가 만무하다
61년생 문제없으니 근심하지 말 것
73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다
85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97년생 혼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52년생 신병 조심 조기검진이 필요하다
64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으라
76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겠다
88년생 배우자 때문에 망신수 주의

55년생 겉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럽다
67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79년생 임철이나 경매에 참여하라
91년생 도움 요청에 회답이 없을 것

58년생 긴장을 늦추지 말라
70년생 지인의 도움을 수용하라
82년생 근심 말라 그것은 해결된다
94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재물이 늘어나고 부귀를 누린다
62년생 무의미했던 것이 가치를 얻게 된다
74년생 호기가 주어진 때 취하라
86년생 그 생각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꿀 것
98년생 협조자가 들어온다

53년생 소문을 믿으면 다툼 생긴다
65년생 선홍후길하니 집안 평온
77년생 분수대로 언행하면 문제가 없다
89년생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 될 것

56년생 냉정히 돌이켜 볼 일이다
68년생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
80년생 귀하가 원하는 사연 하게 된다
92년생 전체적인 편세에 따르도록 하라

59년생 정신적 피곤함 주의하라
71년생 특별히 찾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83년생 작은 성의라도 돌려주라
95년생 책임 완수 다할 때